

행정학에서 과학주의와 인문학주의의 대립과 대립 넘어서기에 관한 연구

이 광 석*
문 유 석**

국문요약

이 글은 행정학에서 암묵적으로 진행되어 온 두 흐름인 과학주의와 인문학주의를 논의의 장(場)으로 끌어내어 그 개념을 정립하고 그 둘 사이의 관련성을 살펴보려 하였다. 여기서 과학주의란 연구주제를 대상화·객관화하는 맥락에서 사회과학의 자연과학화를 주장하는 흐름으로, 행정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논리실증주의, 후기실증주의, 행태주의를 포괄한다. 인문학주의는 과학으로 환원할 수 없는 영역이 있음을 주장하는 흐름으로 포퍼(K. Popper)의 기준에 따르면 현상학, 해석학, 비판이론, 포스트모더니즘을 아우른다.

이 두 흐름의 현재 상태를 행정학의 대표 저널에 실린 논문들의 주제어 검색과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는데, 현 상황은 인문학주의가 상당히 부족하다. 이는 응용과학의 속성인 대응성에 치중하다 보니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제는 사회과학의 선두에 선 학문으로, 다른 학문에 연구의 성과를 수출하여야 할 입장에 있는 행정학은 대응성과 아울러 정합성을 요구함을 지적하였다.

그렇지만 과학주의는 인문학적 요소를 받아들여 왔고, 인문학주의는 과학의 발달과 그 영향을 수용해 왔다. 쿤(T. Kuhn)은 전자를, 후자는 변형·생성 모델(T-G 모델)이 대표할 수 있다. 이 모델을 은유(metaphor)로 삼고 사회체계의 구조적 유형을 서술하고 설명할 수 있다. 여기에 문화적 문법을 심층으로 가미한다면 보다 더 적실성 있게 행정학에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노력들을 통해 공공관료제의 성격, 규모, 범위 및 기능에 관하여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답할 수 있는 행정이론을 구성하여야 한다.

주제어: 과학주의, 인문학주의, 논리실증주의, 현상학, T-G 모델

I. 서론

행정학은 학문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는 단계를 넘어 이제 사회과학을 선도하는 학문으로 발돋움 하고 있다.¹⁾ 물론 여기서 말하는 행정학이란 행정과학과 아울러, 행정과학의 철학까

* 주저자

** 교신저자

1) 학문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한다는 의미는 그 학문에 고유한 연구주제, 고유한 이론, 개념적 경계 등이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 학자 그룹의 형성이나 학과의 존재를 열거한다(김광웅, 1983: 124).

지 아우르는 어떤 것을 의미한다(강신택, 1981:11). 과학의 가장 일반적인 위치가 철학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Russell, 1914:109), 철학은 과학언어의 논리적 조건들에 대한 개념 분석이라고 정의하므로 과학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한다(Wittgenstein, 1921).²⁾ 이와 유사한 중요한 대립이 행정학에서도 나타나는데, 이른바 과학주의(scientism)와 인문학주의(human studies)가 그것이다.³⁾ 전자는 과학주의의 원류(源流)로 행정학에 영향을 지대하게 미친 논리실증주의와⁴⁾ 후기실증주의, 행태주의를 포괄하며, 후자에는 현상학, 해석학, 비판이론 및 포스트모더니즘이나 포스트구조주의들이 속한다.⁵⁾ 이들의 유용성은 이미 확인되었지만 어떻게 관계를 맺을까에 관한 전개가 부족하다.

행정학은 유행을 많이 탄다고 한다(이종수, 2015:134). 그렇지만 유행에 맡길 수는 없고 평가를 통해 어떤 점은 바람직하고, 어떤 점은 극복해야 할 대상인지, 만약 부족한 면이 있다면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 배경에는 21세기의 현실인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경험적 학문의 유용성이 자리잡고 있다. 예컨대, 현상학(phenomenology)의 발상지인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는 현상학 전공 교수가 은퇴하게 되자 그 후임으로 현상학 전공자가 아닌 분석철학 전공을 임명한다고 한다. 이를 일부 철학자들은 현상학에 대한 분석철학의 우위(優位) 또는 대륙철학에 대한 영미철학의 우위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⁶⁾

- 2) 이 서술이 의미하는 바는 철학이 과학과의 연속선상에 있는지를 놓고 의견 대립이 있어왔다. 자연주의와 논리실증주의와의 대립이 그것이다. 자연주의는 자연과학적 방법론의 근거를 자연과학에서 찾는데 비해, 논리실증주의의 흐름인 프레게(G. Frege), 카르납(R. Carnap), 비트겐슈타인(Wittgenstein), 일상언어학파 등은 과학을 선형적인 개념분석을 통해 이해하려 하고 비심리학적 접근법을 택한다(김동식, 1995:44-45). 따라서 자연과학방법론을 사회과학에 적용하는 데에도 두 흐름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 글은 후자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 3) 이 명칭이나 내용에 대한 자세한 고찰은 폴킹혼(Polkinghorne, 1983)과 오용득(2013)을 참조하라. 여기서 과학과 과학주의, 인문학과 인문학주의를 구별하여야 한다. 철학에서의 이 논의가 학문 간의 경계를 넘어 행정학에도 적절하다고 판단하므로 이 용어를 채택한다. 이와 아울러 행정과학의 철학은 과학철학의 영역이고 행정철학은 사회철학의 성격이 강하다. 둘의 구분이 필요하다.
- 4) 논리실증주의는 과학주의에 큰 영향을 미쳤기에 그 둘을 확연히 구분하기 힘들다. 이 글에서는 가능한 한 구분하려 하였으나 본질상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논리실증주의는 계몽주의, 콩트(A. Comte)의 실증주의와 함께 실증주의의 한 유형이다(Sen, 1990). 따라서 실증주의의 기원을 흄(D. Hume)이나 계몽주의 철학에 두기도 하고, 콩트부터로 보기도 한다(Kolakowski, 1972:20-59; Sen, 1990; Coser, 1977). 그러나 행정학에서 의미를 갖는 실증주의는 현대적 의미의 실증주의, 즉 논리실증주의 또는 논리경험주의이다. 실증주의의 발전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Kolakowski (1972)를 참조하고 논리실증주의에 관한 글은 Bergmann (1967), Kraft(1953), Joergensen(1970), Giere & Richardson(1996), Milkov & Peckhaus(2013) 등을 참조하라. 논리실증주의가 독일어권에서 시작하였으나 영어권에서 발전했다는 사실에 대해 에이어(A. Ayer)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분리나 뜬 구름 잡는 낭만적 형이상학의 존중과 같은 독일어권의 전통과는 맞지 않고 또 의도적으로 적대적 태도를 취했다고 한다(Magee, 1978:132).
- 5) 이를 선정할 때는 포퍼(K. Popper)의 기준, 즉 방법론(Methodologie)이거나 방법철학(Methoden-Lehre)에 해당하는 것을 선택하였다(박은진, 1999:96-97).
- 6) 한국하이데거학회 회장 김오철 교수와의 인터뷰 및 www.sueddeutsche.de (2015.3.31.) 신문 자료에 기초하여 서술하였다. 프라이부르크 대학은 후설(E. Husserl)의 연구 근거지이고 하이데거(M. Heidegger)도 여기서 공부하고 교수로 근무하고 총장을 지냈던 대학이다.

그러나 이 논의의 밑바탕에는 경험적 학문의 방법론이 실제 행정학에서는 널리 이용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더 적실성 있게 행정학 이론을 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비판적 함의를 갖는다. 현재 한국 행정학의 위상을 고려할 때, 다른 사회과학에 연구의 성과를 수출하여야 할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위상에 걸맞게 행정학은 현실문제에 대응하여 문제해결의 방법을 알려주는 역할과 아울러, 학문적 체계를 보다 완벽하게 갖추어야 한다. 그럼에도 확장일로에 있는 행정학이 학문적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큰 진전이 없다고 하겠다. 이 글은 행정학이 다양한 흐름들을 포괄하는 큰 우산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과학주의의 시각과 아울러 인문학주의의 시각은 물론 이 둘 간의 대립을 넘어서는 시각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인식 아래에서, 이를 먼저 과학주의와 인문학주의의 개념을 정리한 후 행정학에서의 현황 및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이 둘 간의 대립을 넘어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과학주의와 인문학주의의 개념과 행정학에서의 현황

행정학에서 우수하다고 할 수 있는 이론이나 주장들은 옳다고 여겨지는 것들이다. 옳다고 여겨지는 것들은 검증이나 반증에서 견디어 낼 수 있어야 하는데, 검증이니 반증이니 하는 용어 자체가 과학주의를 대표하는 용어이다.

과학주의의 핵심(central tenets)이 무엇인지에 대해 학자들마다 약간씩 다르다. 주요한 학자들의 주장을 나타낸 것이 아래 <표 1>이다.

<표 1> 과학주의의 핵심

핵심영역 \ 학자	Kolakowski	von Wright	Abbagano	Giedymin	Halfpenny
통일과학의 추구와 과학적 방법	√	√	√	√	√
경험주의	√	√	√	√	√
과학이 유일한 타당한 지식이다	√		√	√	
철학이란 과학의 논리이다			√	√	
과학은 인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	√	
과학의 이상으로서 수리물리학		√			
과학의 성격은 인과적 설명이다		√			
규범에 대한 사회학적 상대주의				√	

출처: Stockman(1983:7)

주) Stockman(1983:7)에서는 실증주의로 되어 있으나 원문의 설명에 따르면 과학주의로 이해되므로 과학주의로 표기하였다.

<표 1>에서 보듯이 과학주의의 핵심은 과학적 방법 및 경험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그 밖에 과학적 지식에 대한 신뢰성을 들 수 있겠다. 따라서 과학주의는 자연과학의 지식을 올바른 지식으로

간주하고 자연과학적 방법론을 지향하는 흐름으로(MacLennan,2006),⁷⁾ 통합과학의 주장으로 이어진다. 즉 자연현상을 분석·종합함으로써 자연법칙을 찾아내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방법론을 세워야 하고 이를 통해 객관적 지식이나 진리를 획득할 수 있다고 본다.⁸⁾

과학주의가 연구주제를 대상화·객관화하는 맥락에서 사회과학의 자연과학화를 주장한다(Polkinghorne,1983; 오용득,2013). 이에 대해, 인문학주의는 과학으로 환원될 수 없는 영역이 있고, 인간과 인간의 활동 및 그 결과물에 대한 인문학적 지식의 고유한 가치를 주장하므로,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차이를 인정한다. 뿐만 아니라 연구주체의 정신이나 창조성을 지닌 자아의 활동은 실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오용득,2013). 이를 단순화시켜 알기 쉽도록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아래 <그림 1>이다.

<그림 1> 과학주의와 인문학주의



왜 과학주의와 인문학주의를 이야기하는가? 어떤 학문과 그 학문이 연구의 주제로 삼는 것 사이의 일정한 관계가 있는데 이를 대응성(correspondence)이라고 한다. 한편 대응성 외에도 그 학문 내에서 일정한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이를 정합성(coherence)이라고 한다.⁹⁾ 이 두 측면을 칼로 무 베듯이 재단(裁斷)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행정학은 응용학문이라는 이름으로 이슈

7) Suppe(1974:3-232)는 과학주의의 발달을 다섯 단계로 나누어 본다. 첫 단계는 1920년대 비엔나 학파의 흐름이다. 둘째 단계는 1940년대부터 시작되는데, 관찰할 수 없는 실체와 공리에 기초한 보편적 진술 체계의 구축에 대한 이론적 진술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된다. 셋째 단계는 논리실증주의의 가정들이 비판을 받게 되는 단계로 네 번째 단계와 병행해 진행된다. 네 번째 단계는 과학의 역사를 분석함으로써 과학의 대안적 체계가 제시되었던 시기이다. 다섯 번째는 실용적 이성을 토대로 과학을 재구성하고, 과학적 탐구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조건들을 수용하는 시기이다(Polkinghorne, 1983:59-60).

8) 객관주의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세계에 대한 합리적 인식이야말로 참된 인식이라는 전제 하에서 가능한 주관적인 것에서부터 독립된 객관적 인식을 추구한다(조주환,2001; 이상원,2005). 즉 지식이란 인간의 외부세계에 대한 해명으로 본다. 또 인간의 이성에서 나온 도구들을 잘 이용하면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믿는다. 이는 정신(mind)과 행동의 차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정신은 인간 행동의 바깥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Stout,2006:3). 이 점에서 행태주의와 일치하고, 구성주의가 지식을 인간의 창조물로 보는 것과 대비된다(고미영,2009:44). 논리실증주의도 실재론적 객관주의와 손잡고 있는데, 이는 Wittgenstein의 후기 사상인 문화적 상대주의와 대비된다(이명현,1984).

9) 이를 철학에서는 진리의 문제로 환원시킨다. 진리의 기준을 두고 대응론(correspondence theory)과 정합론(coherence theory)이 경합하고 있다(김여수,1997; 이승권,2000; 박승배,2005; O'connor,1975).

가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 즉 대응성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고 볼 수 있다. 그 공헌의 상당 부분은 과학주의에서 비롯하였다. 그러나 그 학문 내에서 일정한 체계를 갖추는 정합성의 측면에서는 대응성만큼 성과를 올렸다고 볼 수는 없다. 즉 학문체계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였다.¹⁰⁾ 그 결과 행정학에서 대응성을 위주로 과학주의 방법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온 반면, 인문학주의는 거의 활성화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 둘 사이에 통약가능(commensurable) 여부의 이슈는 커녕 이들 용어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끔 진행되어 왔다.

이 모습은 최근의 행정학 동향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연구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지방정부연구」와 「한국행정학보」에 실린 논문들 중 주제어(keywords)가 ‘현상학’, ‘해석학’, ‘비판이론’, ‘포스트모더니즘’이 들어 있는 논문들을 검색해 보았다. 물론 이들 주제를 지닌 논문 모두가 직접적으로 인문학주의와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닐 수 있지만, 관련이 없더라도 저자가 주제어로 이들을 선정했다면 어느 정도는 그 영향권 안에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제어 검색을 하였다. 「지방정부연구」에서는 위의 주제어를 포함한 논문이 한편도 없었으며, 「한국행정학보」에서 위 주제어를 포함하고 있는 논문들을 나타낸 것이 아래 <표 2>이다.

<표 2> 「한국행정학보」에 실린 논문들의 인문학주의 주제어

		현상학	해석학	비판이론	포스트모더니즘
2012 (총63편)	논문 A		√		
	논문 B	√			
2013 (총63편)	논문 A	√	√	√	
	논문 B		√		
	논문 C	√			
	논문 D	√			
2014 (총67편)	논문 A		√	√	
	논문 B		√	√	
	논문 C	√			
	논문 D	√			
	논문 E			√	
총 193편 중 10편		6	5	4	0 (2010년에 1편)

<표 2>에서 보듯이 행정학은 압도적으로 과학주의에 경도되어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친 현상이 눈에 띈다. 물론 이는 과학주의가 효율성 패러다임과 잘 어울리고 공헌도 크며 또 대응성에 치중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학문의 정합성을 이룩한다거나 체계화함에 있어서 또 거시적으로 조망하는 데에는 인문학주의가 나름의 유용성이 있을 것이다.

10) 필자는 정합성에 대한 연구가 학문으로서의 행정학을 더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고 주장하고 이런 영역의 연구를 ‘행정언어’라고 부른다. 본문에 소개한 과학언어의 논리적 조건에 대한 개념분석이 필요하다는 비트겐슈타인의 주장은 이런 측면에서 들을 만하다. 이 관점에서는 행정학이란 행정에 관한 분석 명제와 종합명제의 총체로 정의된다.

이와 관련이 있는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강신택(2002; 2005), 김종술(1987; 1990), 안병영·정무권(2007), 박종민(2009) 등에 의해 행하여졌다. 강신택은 과학철학의 논의를 사회과학에 도입하였고(강신택, 2002), 이를 행정학에 적용하였다(강신택, 2005). 박종민(2009)은 art의 번역을 기술이 아니라 인문학으로 번역하여, 행정학은 과학인가 인문학인가로 표현되었다면 행정학의 연구방법과 주제, 지적 활동, 교과과정 등이 훨씬 다양해졌으리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김종술(1987)은 행정규범들의 개념분석을 통해 주류 행정학과 비주류 행정학의 차이를 대비시키고 있다. 김종술(1990)은 정치학의 발달을 행태주의에 기초한 정치과학의 해체와, 후기행태주의에 의존하는 재구축 과정을 정리하고 있다. 이들 연구들은 이 글의 밑바탕이 되었다.

이어서 행정학에서의 통시적 관점에서 과학주의와 인문학주의를 정리하고, 그 대립과정에서의 영향을 설명함과 아울러 그 대립을 넘어서 조화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III. 행정학에서의 과학주의

과학주의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 20세기의 논리실증주의 방법론은 과학이 가지고 있는 절차주의(procedualism)와 설명(연역적 설명, 인과적 설명, 통계적 설명 등을 포함)으로 요약할 수 있다(Polkinghorne, 1983:60; 정대연, 1997:82; Brown, 1977:87; Feigl, 1969; 오용득, 2013; Pawar, 2009).¹¹⁾ 과학주의를 대표할 만한 모델은 이미 고전이 된 연역·법칙적 모델(deductive-nomological model: 이하 D-N model)이다(Hempel, 1965, 1966; Salmon, 1990; Itokonen, 1975:382; 오용득, 2013).¹²⁾ 여기서는 과학주의의 영향권 안에서 행정학에 큰 영향을 미친 논리실증주의와 후기실증주의 및 행태주의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¹³⁾

11) 이에 대해 자세한 설명은 Chalmers(1982)와 Halfpenny(1982)를 참조하라.

12) 험펠의 모델(Hempel model), 험펠-오펜하임 모델(Hempel-Oppenheim model), 포퍼-험펠 모델(Popper-Hempel model), 또는 포괄법칙 모델(Covering Law Model)로 불리기도 하는 이 모델은 너무나 알려진 모델이라 상세한 설명은 피한다. 험펠과 오펜하임은 과학적 설명이 갖추어야 할 조건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설명항은 피설명항을 논리적으로 함축하여야 한다. 둘째로, 설명항은 피설명항을 연역해 내기 위하여 필수적인 일반법칙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셋째, 설명항은 경험적 내용을 가져야 한다(Brown, 1977; Hempel, 1965; Halfpenny, 1982; 강신택, 1981). 물론 논리실증주의의 영향력이 후퇴한 이후 D-N 모델이 흠결이 있다고 판정이 났지만 과학적 설명의 이상형으로 간주되고 있다(Brown, 1977; https://en.wikipedia.org/wiki/Deductive-nomological_model). D-N 모델을 간단히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Itokonen, 1975:382).

$$(x)(f(x) \supset g(x))$$

$$f(a)$$

$$\therefore g(a)$$

13) 그밖에 최근의 과학주의는 생물학자 윌슨(E. O. Wilson)의 생물학 중심의 통섭(consilience)이라고 한다(오용득, 2013). 다만 이 흐름은 행정학과 큰 관련이 없으므로 설명하지 아니한다.

1. 논리실증주의와 행태주의의 의의

1) 논리실증주의의 개념

논리실증주의는 아인슈타인(A. Einstein)의 물리학 이론, 마흐(E. Mach)의 감각주의, 러셀(B. Russell)과 비트겐슈타인(L. Wittgenstein)의 영향을 입은 비엔나 학단(Vienna Circle)에서 체계화한 것이다(Polkinghorne,1983; Benton,1977; Feigl,1969; Lynch and Cruise,2006).¹⁴⁾ 대체로 논리실증주의의 네 가지 원칙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논리적 원자론의 원칙,¹⁵⁾ 둘째로, 의미의 검증가능성의 원칙(Hesse,1969; 소홍렬,2000; 오용득,2013), 셋째로, 선형적 지식의 분석적 성격으로 모든 필연적 명제들은 세계에 관한 진리를 말한다기보다는 우리의 생각들을 보여 준다는 주장, 넷째로, 가치에 관한 정의적 이론(emotive theory of values)으로 가치에 관한 명제는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Lynch & Cruise,2006).¹⁶⁾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논리실증주의와 논리경험주의와의 관계이다. 두 흐름을 구별하려는 견해에 따르면¹⁷⁾ 공시적(synchronic)으로 비엔나 학단(Vienna Circle)을 논리실증주의라고 하는데 비해 베를린 그룹(Berlin Group)을 논리경험주의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통시적(diachronic)으로는 나찌(Nazi) 정권의 박해를 피해 영국과 미국으로 이주하여 분석철학에¹⁸⁾ 지대한 영향을 미친 흐름

14) 논리실증주의는 형이상학을 배제하고 과학주의를 지향하며(Phillips,1977; Stockman,1983), 현상론(phenomenalism)과 물리주의(physicalism)에 입각해 있다(Russell,1994; 1969; Polkinghorne,1983). 또 모든 탐구는 과학적 방법에 기초해야 한다는 주장의 의미는 과학이 가치있는 지식을 제공해 준다는 전제에 서 있다(Sen,1990:14; Ayer,1959; Burrell and Morgan,2006; Harmon and Mayer,1986; Lutch & Cruise,2006).

15) 논리적 원자론(Logical Atomism)이란 복잡한 명제들의 진리성 여부는 감각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단순한 명제 위에 서 있다는 것이다(Lynch & Cruise,2006; Russell,1994;1969; 박병철,2006). 이는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철학논고」에서 그림이론으로 구체화된다(Russell,1994;1969; Lynch & Cruise,2006). 이에 따르면 예컨대 악보를 이용해 음악이 연주되고 음악이 악보로 보존되는 것은 서로 간에 내적으로 논리적 구조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a가 b에 대해서 R이라는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aRb"로 표시한다(Russell,1969; 소홍렬,2013). 이 표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실과 언어(표현)가 논리적 구조를 공유해야 한다. 따라서 낱말이나 사실들의 배열 그 자체와 명제와 그에 대응하는 사실은 공유되어야 한다(Russell,1969).

16) 이 흐름의 특색은 방법론으로 과학적 질문이 형성되는 언어의 논리적 분석에 있다는 점이다(Kolakowski,1972:203). 즉 논리실증주의는 사고(thought)에 대한 설명은 언어에 대한 설명을 통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 전제가 성립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고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언어를 통해서일 뿐이기 때문이다(Dummett,1993:4; 이명현,1995). 이를 수용된 관점(received view)이라고 하는데, 그 특징은 진정한 지식은 에피스테메(episteme)로 관찰명제와 이에 기초한 귀납이나 역역에서 추리된 이론명제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지만 오늘날 지배적, 표준적, 또는 주류라고 부르는 접근법이 되었다(Polkinghorne,1983).

17) 물론 이 구별은 최근 독일의 통일과 함께 Nazi 독일에 의해 피폐되었던 역사적 사실을 반성하고 Berlin에서의 학문 활동이 학문발전에 공헌하였음을 강조하고자 하는 복선이 깔려 있다고 하겠다. 자세한 Milkov and Peckhaus(2013)을 참조하라.

18) 이를 후기분석철학이라고 하고 현재 여기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학자는 Donald Davidson, Hilary Putnam, Richard Rorty 등을 거명할 수 있다(Glock,2008). 따라서 논리실증주의는 전기분석철학이

전체를 논리경험주의라고 한다(Milkov and Peckhaus,2013; Polkinghorne,1983; Stegmüller,1969; Gross,1970).

이렇게 구별하려는 노력이 있지만 과학주의를 지향하는 목표가 같고 인물 구성에서도 큰 차이가 없으며, 후세에 남긴 영향력에서도 뚜렷이 구별해 내기도 힘들므로 같은 범주로 보는 것이 대세이다(Kraft,1953; Polkinghorne,1983).

2) 행태주의의 개념과 논리실증주의와의 관계

행태주의는 정신주의(mentalism)에 대응하는 개념이며(Uttal,2000), 행위에 대한 과학으로 객관주의의 한 유형이다(Baum,2008). 행태주의는 행위가 정신을 반영하고 정신과 행위의 일치를 전제하므로 정신을 알기 위해 밖으로 표출된 행위로 판단한다. 따라서 '사회로 표출된 행위 또는 공개적으로 관찰될 수 있는 행태를 그대로 연구한다'라는 관점이며(MacLennan,2006), 그 근거는 '어떤 정신의 상태에 있다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행동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이다'라는 데에 있다(Stout,2006:3).

행태주의는 20세기 전반에 심리학의 영역에서 주도적 흐름으로 부상하였고, 여전히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Sen,1990).¹⁹⁾ 특히 1920년대부터 1950년대에 이르기까지 심리학을 넘어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에서도 주도적인 학파였다. 이렇게 발전한 연유로 논리실증주의와의 방법론상의 교감(交感)을 꾀고 있다.²⁰⁾

행태주의는 심리적 속성들을 행동성향의 속성들과 동일시함으로써 행동상의 결과를 심리적 원인과 관련짓는 주장에 대해 어느 정도 설명력을 부여하는 점이 강점이라고 한다(Fodor,1991:20). 이는 측정을 선호하고 형이상학을 거부하는 논리실증주의와 일치점이 많다. 또 논리실증주의자들은 그 이름에 걸맞게 논리적 구성(logical construction)을 강조하는데, 행태주의 심리학에서도 일치한다.

물론 차이점도 있다. 논리실증주의가 측정할 수 없는 것(the unmeasurable)이나 측정이 안 되는

라고 할 수 있다(김동식,1995:45).

19) 행태주의 발전에 이바지한 세 요소들은 구조주의(structuralism)로부터 기능주의(functionalism)로의 전환, 파블로프(Pavlov)의 조건반사(conditioned reflex), 쏘다이크(Thorndike)의 동물학습에 관한 연구라고 한다(Sen,1990:90). 심리학에서 행태주의를 정초한 왓슨(John B. Watson)은 심리학은 사람을 동물과 같은 방법, 즉 외부에 나타난 행동(overt behavior)을 관찰하는 방식으로 연구할 때 목적달성이 쉬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까닭은 행동에 대한 예측을 공개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과학적일 수 있고,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실용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MacLennan,2006). 주의할 것은 행태주의가 심리학에서 유래했으며, 제1차 행태주의 선언(the first behaviorist manifesto)이 비엔나 학단(Vienna Circle)보다 앞선다는 점이다. 그러나 행태주의 주창자인 B. F. Skinner (1904-1992)의 사상의 근저가 마흐(Mach), 포앙카레(Poincare) 및 콤테(Comte)에 있는데, 이들이 바로 논리실증주의 사상의 연원(淵源)이라는 점이다. 그 뿐만 아니라 논리실증주의는 조작주의(operationalism)를 통해, 또 검증원리를 통해 행태주의에 영향을 주었다(Sen,1990).

20) 행태주의는 학문의 영역뿐만 아니라 문학이나 광고 등 실무에도 영향을 미쳤다. 문학에서는 헉슬리(Huxley)의 '멋진 신세계(Brave New World)', 오웰(G. Orwell)의 '1984년' 등이 행태주의에 영향을 받은 작품으로 평가된다(MacLennan,2006).

것(the unmeasured)을 의미 없다고 간주하는데 대해, 행태주의는 중요한 것이라고 여겨지면 측정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현상들을 측정하려는 시도에는 잘못이 없고, 측정된 현상의 부분이 현상 전체라고 볼 수 있게 된다는 관점이다. 이는 쏘다이크(E. L. Thorndike)가 1926년에 지능을 측정하는 IQ 테스트를 출간했을 때 이슈가 되었다(MacLennan, 2006).

행정학에서 행태주의의 의미는 앞서 언급한 논리실증주의의 네 가지 원칙 중에서 사이먼(H. Simon)이 검증가능성의 원칙과 가치에 대한 정의주의 이론을 받아들여 가치-사실 이분법(fact-value dichotomy)으로 격상시켜, 정치-행정 이분법을 대체하도록 하였다는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Lynch & Cruise, 2006). 이는 신행정학에서 가치로의 접근법이 나타나기 이전까지 큰 영향을 남겼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가 과학자의 역할이 사실명제를 검토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논리실증주의에 경도되어 있음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밖에 경제인과 구별되는 행정인(administrative man)의 개념이나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 만족모형 등은 익히 알려진 그의 공헌이다. 또 사회심리학의 도입을 통해 공공관료제에 조직발전(organizational development: OD) 기법의 도입이나 이른바 ‘진정한’ 행정과학의 지향(Lynch & Cruise, 2006: 410:566)은 나름으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행태주의도 실증주의 인식론에 근거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제약성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일어났다. 이것이 1969년 미국정치학회 회장 이스턴(D. Easton)이 제창하였고²¹⁾ 1970년대 유행한 후기행태주의(post-behavioralism)이다(김영래, 1983; 김광웅, 1975). 이러한 변화의 핵심에 적실성의 신조나 가치에 대한 수용 및 현상학적 방법론을 통한 보완을 고려하고 있음을 볼 때 과학주의를 추구하면서 인문학주의로의 이행으로 볼 수 있다(김영래, 1983). 여기에서 그 한계를 보인다고 한다(Kann, 1980; Miller, 1972).

2. 과학주의의 재구축: 후기실증주의

과학주의를 이끌었던 논리실증주의는 검증원리의 타당성이나 귀납원리에 대한 연구의 미진 등 몇몇 문제점으로 인해(김동식, 1995: 50) 그 바탕을 후기실증주의로 넘겨주었다(Lynch & Cruise, 2006). 포퍼(K. Popper)에 따르면²²⁾ 검증은 단 하나의 반증으로도 ‘참’이 ‘거짓’으로 바뀌므로 완전한 증명이 안 되는 점을 지적하고 연역에 따른 이론체계를 주장하였다(Chalmers, 1982; 신중섭, 1992; 조용현, 1992; 박은진, 2001). 즉 포퍼를 비롯한 후기실증주의자들은 인과설명에 연역규범

21) 이스턴(D. Easton) 자신이 행태주의 학자로 행태주의 신조(behavioral credo)를 주장했었다. 그가 후기행태주의를 제창한 것은 개인적 태도 변화라기보다는 전반적 풍토의 변화라고 보아야 온당할 것이다. 후기행태주의의 문제점으로는 실증주의적 전통을 이어받으면서 수정하려 했다는 점이다. 아울러 연구방법에 있어서도 과학적인 것의 추구를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후기행태주의를 반행태주의로 보기도 하고 행태주의의 수정으로 보기도 한다(김영래, 1983; Miller, 1972; Kann, 1980).

22) 포퍼가 후기실증주의인지 여부는 이것 자체가 하나의 독자적 논문의 주제가지만, 여기서는 Lynch & Cruise(2006) 및 박순영(2012)을 좇아 후기실증주의에 속한다는 견해를 따른다. 자세한 논의는 김덕영(2003), 우실하(1990), 신중섭(1992), 윤광호(2002), 임규정(2004), 박만엽(2008), 윤민재(2010), Adorno, et al.(1976), Agassi(2014), Stockman(1983), Salmon(1990) 등을 참조하라.

적 모형을 설정하여 합리적 재구성을 시도하였고 이를 사회과학에 적용시켰다(박순영, 2012).

행정학에서의 후기실증주의 또는 과학주의의 재구축 시도를 Lynch & Cruise(2006:567-572)는 다운즈(A. Downs)와 니스카넨(W.A. Niskanen), 공공선택론에서 찾는다. 정치에 대한 경제적 접근 방법인 공공선택론은 인상적인 이론적 구조(theoretical apparatus) 위에서 연역적 추리(deductive reasoning)에 의존하며 실증주의에로 되돌아가려 하지 않는다. 당위명제(ought statement)가 사실 명제로부터 도출될 수 없다는 실증주의 공리와는 달리,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관료제라는 전제에 기초한다는 점은 방법론적 도전 이상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한다(Lynch and Cruise, 2006).

3. 논리실증주의의 영향과 한계

논리실증주의의 행정학에 끼친 영향과 공헌을 살펴보면, 논리실증주의의 가치와 사실의 분리는 실제생활에서는 정치와 정책의 분리라는 모습으로 응용된다(이덕복, 1993:55-74). 이는 기술관료적 모델(technocratic model)로 나타나 자유민주주의적 공공정책 형성에 이바지하였다.²³⁾ 즉 논리적 원자론에 기초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잘 어울린다는 점이다(이덕복, 1993). 러셀(B. Russell)에 따르면 “과학은 경험적이고 잠정적이고 비독단적이다. 따라서 과학적 세계관은 실천적 측면에서 자유주의 세계관과 짝을 이룬다”(Dallmayr, 1984:50; Russell, 1947), 이렇게 짝을 이루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절차주의(procedualism)와 개인주의적 성격 때문이다. 이는 “인간에 대한 통치는 사물에 대한 관리로 대체되어야 한다”(Iggers, 1958, [이덕복, 1993에서 재인용])는 관리과학의 명제가 도출된다. 이 관리과학의 명제가 ‘Σ개인’에게 input/output의 관계로 재단하는 효율성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 현대에서 국가작동의 원리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이덕복, 1993).²⁴⁾ 논리실증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상호관련성은 아래 <그림 2>로 나타낼 수 있다.

23) 에이어(A. J. Ayer)는 논리실증주의는 해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점에서 낭만적 사고의 존중이 독일어권의 전통이었고, 나찌즘은 빛나간 낭만주의이며 이를 바탕으로 나찌즘의 융성을 설명하고 있다. 또 나찌 정부나 공산주의가 논리실증주의를 금지시키고 말살하려 한 이유는 이 점에서 설명가능하다(Magee, 1978:132). 정책과 정치의 분리모델이 논리실증주의와 잘 어울리는 것은 논리실증주의는 해방적인 성격에서 찾을 수 있다. 정책과 정치의 분리모델에는 결정주의적 모델(decisionistic model), 기술관료적 모델(technocratic model), 실용주의 모델(pragmatistic model)가 있다고 한다(Habermas, 1971). 행정학에서는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와는 좀 다른 분류가 자주 인용되는 Nakamura와 Smallwood 모형이다(강신택 외, 1982:86).

24) 복지주의 관점에서는 관료제 행정은 보편적이지만 복지국가 체제에서는 이를 보충할 전문가(expertise)가 행정에 참여하는 전문가주의 행정(professionalism)이 필요하다고 한다(Clarke and Newman, 1997:6).

〈그림 2〉 논리실증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상호관련성



출처: 이덕복 (1993:55) 수정; Lynch & Cruise (2006:555-593)

논리실증주의는 논리적 원자론에 기초하므로 행정을 집합으로 보게 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Fann,1969). 정부의 기능을 'G'로 표현한다면 행정학과 관련하여서는 $G=(P_m+P_i+P_e---$)(P_m : 정책결정, P_i : 정책집행, P_e : 정책평가)라는 집합으로 표시된다(유민봉,2012). 예를 들면 POSDCoRB는 정책집행의 영역이기에 $P_i=(POSDCoRB)$ 라는 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²⁵⁾ 그 하위의 행정인 POSDCoRB의 O(조직)는 같은 집합 방식으로 묶을 수 있고 이를 $O=(A_1+A_2+A_3+A_4+A_5-----+A_n)$ 로 표현할 수 있다. 그 하위 수준(lower level)은 같은 수준의 행정끼리 같은 방법으로 묶일 수 있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행정은 최일선까지 범주화할 수 있다. 최일선의 집합을 'P'로 표현한다면 이는 하나하나의 행정행위의 집합이다. 예컨대 공항에서의 여권심사나 동사무소의 양곡지급 같은 것은 ' $p_1+p_2---p_n$ '으로 표현하여 정리할 수 있고(김여수,1984), 이들은 다음과 같이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P=(p_1+p_2+p_3+p_4+p_5-----+p_n).$$

현재 행정학 교과서에 실린 행정학의 개념들을 조사해 보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사례를 보인 것(조직론의 구조차원)이 아래 〈표 3〉이다.

25) 물론 이는 이른바 POSDCoRB를 정책집행이라는 관점에 기초하여 설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된다.

〈표 3〉 조직론(구조차원)의 내용구성

절	관	항	세항		
1. 조직구조	1)의의				
		2)조직구조의 차원	(1)복잡성 ①수평적 분화 ②수직적 분화 ③공간적 분화		
			(2)공식화		
			(3)집권화		
	3)조직구조의 설계	(1)원리론		①분업 ②계선과 참모의 구분 ③계층제 ④통솔의 범위 ⑤명령의 통일	
				①규모 ②기술 ③환경	
			(2)상황론	①규모 ②기술 ③환경	
		2. 조직구조의 유형	1)이론적 유형	(1)기계적 조직과 유기적 조직	①기계적 조직 ②유기적 조직 ③평가
				(2)애드호크라시	①의의 ②특성 ③유형 ④평가
			2)실제 유형	(1)부처조직	
(2)위원회 (3)책임운영기관 (4)정부조직의 특수성					

출처: 유민봉(2012: 제6부 제12장)

이 방식은 현재 행정학의 교수법에서 취하는 방향이다. 그 의미는 상위 수준에서는 체제적이거나 논리적인 틀을 가지더라도 하위 수준에서는 결국 경험주의에 의지한다. 즉 '부처조직, 위원회, 책임운영기관'이라는 하위 단위에서 경험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과학주의의 영향은 예상보다도 넓고 깊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설명한 D-N 모델이 사회과학에 속하는 사회학, 심리학 등에도 깊고 넓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도 같은 취지로 보인다. 예컨대 역사연구에 D-N 모델이 적용될 수 있고, 이미 사용했었다고 험펠은 주장하였다(Polkinghorne,1983:88).²⁶⁾ 그 뿐만 아니라 수사(rhetoric)나 언어로의 귀환 등이 역사학에 영향을 준 방법론들이며 대표적으로는 쿤의 이론에 바탕을 둔 사회구성주의이다. 물론 쿤 자신은 사회구성주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홍성욱,2005).

논리실증주의나 논리경험주의는 논리주의를 경험의 영역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²⁷⁾ 프레게(G.

26) 역사연구에서 이미 사용했었다는 험펠의 주장은 D-N 모델을 그대로 완벽하게 따른 것은 아니고 생략적 논증(elliptical arguments)이나 개괄적 설명(explanation sketches)을 사용하는 형태로 작용되었다고 한다. 자세한는 Polkinghorne(1983:88)을 참조하라.

Frege)는 논리주의를 산술의 영역에 적용하였고, 화이트헤드(A. N. Whitehead)와 러셀은 기하학의 영역으로 확대하였다. 이를 경험의 영역에까지 확대·적용한 이는 카르납(R. Carnap)이었다(전영삼, 2005; Carnap, 1967). 그러나 근본적으로 논리적인 것과 경험적인 것을 일치시키기에 귀납의 문제(problem of induction)와 구획의 설정(demarcation)이라는 난관에 봉착했음은 이미 지적되었다(Polkinghorne, 1983:93). 일상적으로 말하자면, “새는 난다. 타조는 새다. ∴ 타조는 난다.”로 결론지어야 한다. 이는 경험칙과 어긋난다. 여기서 의미총체론이 등장하게 된다(Putnam, 1988). 뿐만 아니라 정당성을 너무 확신한 나머지, 다른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다(intolerant, arrogant and closed-minded attitude). 그 중에서 수량화되지 않는, 또 수량화될 수 없는 것을 무시한 것이 논리실증주의의 한계이고(MacLennan, 2006), 이 한계를 극복하려 한 노력이 행태주의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본질적으로 비판한 흐름이 인문학주의이다. 이제는 이에 대해 살펴본다.

IV. 행정학에서의 인문학주의

1. 인문학주의 행정이론들

반실증주의를 표방하는 인문학주의는 과학적 방법으로 설명 불가능한 세계가 있고 과학적 방법으로 환원 불가능한 영역이 있음을 주장하고, 의미나 이해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박순영, 2012). 이른바 방법론의 다양성에 기초한 질적 연구 방법, 인간의 의식을 존중하고, 양적으로는 적지만 가치있는 차이를 존중하고, ‘Σ개인’이 아닌 ‘개별 개인’에게 보다 인간적 관계로 접근한다. 따라서 심층의 의미나 인간의 얼굴을 한 패러다임(human-faced paradigm)을 주장하는 흐름이다.²⁸⁾ 현재에도 객관성을 표방하는 행태주의나 실증주의가 여전히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²⁹⁾ 1970년대 이래 밖으로 보이는 것을 우선하느냐, 의미를 우선하느냐의 이슈가 제기된 이래 다양한 비주류 흐름들이 있어 왔다(Lynch & Cruise, 2006; Frederickson, 1980; Marini, 1971; 김동식, 1995). 더 나아가 이른바 통약가능한 모델의 탐구는 인문학주의에서 가능할 것이라는 시사도 찾을 수 있다.³⁰⁾

27) 한국어 논리주의는 영어 ‘logism’과 ‘logicism’을 아우르는 용어이다. 전자는 심리주의에 대응되는 견해이고 후자는 수학을 논리학 위에 정초하려는 견해이다(중원문화, 2009:139). 본문에서 지칭하는 것은 후자이다(Schilpp, 1991).

28) 행정학 연구에 도움이 된다면 다양한 접근방법이 행정학에 응용될 필요가 있다. 현상학에서 말하는 생활 세계라든가(Husserl, 1970), 의식의 흐름(James, 1990; Myers, 1986; Putnam, 1997) 등이 여기에 속한다. 비단 이들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구조주의(김형효, 2008; 소두영, 1988; 김상환, 2011; 우치다, 2002; Glucksman, 1974)와, 이와 대척점에 있는 역사주의의 의미있다고 생각한다(이한구, 2011).

29) 다른 학문에서도 이에 대한 반성이 있지만 행태주의나 실증주의가 주류라고 한다(Sen, 1990:4).

30) 사회학에서는 이 범주에 속하는 흐름을 언어분석 사회학과 현상학적 사회학으로 분류하여 검토하고 있다(김경동, 1981). 전자는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삶의 양식(form of life)이라는 개념을 발전시킨 윈치(P. Winch)와 푸코(M. Foucault) 등이 속하고, 후자는 슈츠(A. Schutz)를 들고 있다.

인문학주의의 행정이론은 사회과학이라는 이름 아래에 묶이는 영역 속에서 의미있는 행동이나 현상을 탐구하고 설명하려고 했다(Sen, 1990:6). 린치와 크루즈(Lynch & Cruise, 2006)는 행정학에서 인문학주의의 방향으로 이끄는 데 공헌한 이들을 현상학, 실존주의(existentialism), 롤즈(J. Rawls)의 정의론, 포스트구조주의나 포스트모더니즘 등을 들고 있다.³¹⁾

행정학의 영역에서 인문학주의의 시원(始源)을 신행정이론에서 볼 수 있다. 신행정이론은 이제 고전이 된 이론으로, 발전행정론과 행태론이 지닌 이론적 적실성의 한계에 대한 반발로 나타났음은 익히 알려져 있다. 이전 이론들과의 차이는 가치중립에 대해 가치 추구, 사회적 형평성 개념 도입, 롤즈의 정의론에 따라 최소수혜 계층의 불평등성에 대한 인식, 이를 위한 참여, 분권화, 서비스의 균등배분, 직원과 고객과의 상호작용, 교육훈련, 윤리현장의 채택, 성과 관리 등을 들 수 있다(Frederickson, 1980; Lynch & Cruise, 2006).

사회과학에서 이해나 의미의 해석을 추구하는 해석학도 있다(이정복, 1980). 이는 과학주의에서 취하는 '유일하게 옳은 해석'을 지향하는 법칙적(nomothetic)이고 개념화에 반대하고, 개별화된 경험을 존중하는 흐름이다(김창래, 2008). 여기서는 과학주의와는 정반대로 '늘 여지가 남는 어떤 것으로, 참일 수도 거짓일 수도 있다'는 태도이다(김창래, 2008). 문제는 해석이란 해석(n)에 대한 해석(n+1)이 되고 재해석(n+2)를 불러오는 무한 소급의 가능성이다. 물론 '납득할 만한'이라는 근거는 설정해 두지만(김창래, 2008), 이것 또한 해석되어야 할 근거로 작용한다. 또 진리를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술에서의 직관처럼 이른바 '방법적 거리두기'를 통해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Gadamer, 1982; Connolly & Keutner, 1988; Weinsheimer, 1985; 이규호, 2005a; 이구슬, 1996).³²⁾ 그러나 사회과학은 예술과는 달리, 방법을 통해서 학문적 진리를 찾는 경우인데, 지나치게 직관에 의존하므로 인해 그 학문 내부의 통약불가능을 제기한다. 그러나 만약에 이를 행정학에 알맞게 수정한다면 유익한 방법론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인문학주의라 할 수 있겠다. 최근에 선보인 해석 현상학적 분석(IPA: Interpretative Phenomenological Analysis)은 그런 의미에서 유용한 방법론으로 보인다(Smith, et al, 2009).

행태주의가 외재주의에 입각하는데 비해, 현상학은 내재주의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구별되고, 논리학과 같은 이성주의와도 구별된다(김지홍, 2002). 현상학의 내재주의적 성격으로 인해 인문학에서는 의식 그 자체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하겠지만, 행정학에서는 의식 그 자체에 대한 연구보다는 정책 주체나 정책 대상들이 어떻게 정책결정이나 집행에서 합의를 도출하거나 파탄에 이르는가를 생생히 보여주는 '의식의 흐름'에 대한 연구가 더 어울리고 공헌할 가능성도 더 높다(Bird, 1999; James, 1990; Myers, 1986; Putnam, 1997; 이광석, 2014). 더욱이 생활세계라는 개념은 행

31) 최근의 인문학주의는 로티(Rorty, 1998)가 제시한 방향으로의 진행일 것이라고 한다(오용득, 2013). 그는 앞서 각주 13)에서 소개한 통섭에 대한 비판으로 지식의 기능적 측면에서 인문학주의와 고학주의가 분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32) 해석학의 고전이라 할 수 있는 가다머(H.-G. Gadamer)의 주저(主著)인 「진리와 방법」이 의미하는 바는 정신과학적 '진리'와 자연과학적 '방법'의 관계로 상호대립적이고 상호배제적인 관계로 이해된다고 한다. 물론 그와 같은 이해에 반대하고 언어철학적 견지에서 보는 견해도 설득력이 있다. 자세한 것은 김창래(2001)를 참조하라.

정학에서 논의되는 ‘공동체’라는 개념을 보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는 시사를 제공해 줄 수 있다(이광석,2014).

2. 행정학에서 인문학주의의 유용성

과학주의가 유용함은 이미 많은 글들에서, 또 지금까지의 업적에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인문학주의의 유용성은 어디에서 입증을 해야 하는가? 인문학주의란 인간경험을 의미체계로 보며 가치를 고려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Lynch & Cruise,2006:411-412; 황의숙,1998; 연효숙,1998). 따라서 그 유용성은 과학주의의 근거가 될 토대를 인식의 범위 내에서 설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김동식,1995:44). 과학주의로는 최근의 파리 테러나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alestine Liberation Organization: PLO)에 의한 팔레스타인 국가 창설 과정 등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 개체주의로 환원할 수 없거나 인과율로만 다룰 수 없는 경우, 이른바 갑질 문화와 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구조에서 기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주의로는 그 본질을 파악하기 어렵고 인문학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 포퍼에 따르면 인문학주의는 과감한 가설이 가능하게 한다(Chalmers,1982). 즉 가설의 원천은 인문학에 힘입을 가능성이 높다. 또 반실증주의인 인문학주의와 실증주의의 과학적 방법 사이에서 존재하는 통약불가능성(incommensurability)을 통약가능하도록 한다. 그 사이의 틈새를 좁혀 통약가능하도록 한다는 말은 과학주의자와 인문학주의자 사이에는 객관성이라든가, 방법적 거리두기라든가 등의 개념에 있어서 차이이기 때문인데, 개념 정리를 통해 통약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구슬,1996:82).

앞서 논리실증주의에서는 행정을 집합으로 본다고 하였는데, 인문학주의에서는 어떻게 보느냐를 살펴본다. 여기서 제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이론은 비판이론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자본주의 사회와 국가 위기를 논의한다. 우선 정부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는데, 정부란 위기를 관리하는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체제로 본다. 위기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산발적 위기(sporadic crisis)로서 체제 내의 위기를 말한다. 다른 하나의 위기는 주목할 만한 사건을 만들어 내는 구조, 즉 사회적 과정의 문법(grammar)을 지키지 않는 것을 말한다(Offe,1984:37). 여기에서 위기란 위기관리 체제의 위기(crisis of crisis management)를 말하는 것이다.

오페(C. Offe,1984: 81)에 따르면 자본주의 국가는 아래 <그림 3>에서 보듯 경제체계, 정치행정 체계, 규범적·합리적 체계 등 세 가지 유형의 하위 체계로 이루어져 있고 사회 전체는 상호간에 의존 및 규제하는 원리들로 구성된다고 한다.³³⁾ 그런데, 어떤 사회를 규율하는 전체 체제(social system) 속에서 그 구성원들이 따르는 규칙들이 그 밑바탕에 작용하는 법칙(underlying functional

33) 경제체계는 사적으로 소유하는 상품들의 이윤추구를 위한 생산과 교환이 이루어지는 체계를 말하고, 규범체계는 사회 안정이 이루어지는 역할(즉 정당화기능)을 수행하는 체계이며, 정치행정체계는 이 두 유형의 체계들을 관리하는 체계이다. 경제체계는 축적기능을 담당하며, 복지국가가 장기적으로 지속하는데 필수불가결하다. 그 이유는 대중으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재원의 원천이기 때문이다(김태성·성경룡,1999:145).

laws)을 위반하거나 그 구성원들이 그 법칙의 작동 방식대로 행동하지 않을 경우에 통치불능이 발생한다고 한다(한상진,1988; O'connor,1987).

〈그림 3〉세 가지 하위체제 간의 관계



출처: 김태성·성경룡(1999:145), Offe(1984:52), Jänicke(1988)

위 프레임은 행정의 본질을 규제서비스와 복지서비스로 요약한다.³⁴⁾ 그런데 이 세 가지 하위체제가 선순환구조가 작동하지 않을 때 행정(위 표에서는 정치행정체계)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이슈이다. 이 현상이 나타나는 전형적인 사례가 신자유주의로, 이 때 정치행정체계는 필연적으로 규제서비스를 완화하고 복지서비스를 축소하여 축적기능을 돕는다. 이 이론은 요즘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을 잘 설명하고, 연금개혁이니 복지개혁이니 규제완화니 등등의 본질을 잘 짚은 것으로 보인다. 인문학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이와 같은 거시적 현상의 본질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겠다.

V. 과학주의와 인문학주의의 대립 넘어서기

1. 쿤(T. Kuhn)의 영향: 과학주의에서 인문학주의로

논리실증주의는 경험성과 과학성에 그 기반을 두었고, 통일과학의 추구한 것이 후속 학문에 예상하지 못한 큰 영향을 미쳤다. 통일과학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쿤의 패러다임 이론이 나온 것이 그 영향 중 하나이다(홍성욱,2015; Reisch,1991; Polkinghorne,1983).³⁵⁾ 이런 점에서 쿤의 패러다임과 비슷한 생각으로 카르납의 프레임웍(Framework) 이론이 있다(Reisch,1991; 홍성욱,2015). 프

34) 행정학에서 행정규제론이라거나 규제정책론이라는 과목이 있어서 규제의 본질과 규제의 영향을 강의한다. 그러나 그 취지는 규제가 너무 많고 일상화된 행정 현상의 반작용이지, 규제 자체는 행정의 본질이다.

35) 쿤의 책은 통일과학의 국제백과사전(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Unified Science) 시리즈의 한 책으로 출간되었다(Kuhn,1970; Reisch,1991; 홍성욱,2005). 이 과정에서 Carnap은 호의적 비판과 격려로 쿤의 책이 세상에 나오는데 일조를 하였다. “아이러니하게도 논리실증주의가 기대한 바와는 정반대로 그의 책은 논리실증주의의 철학적 기반을 부수고, 통일된(unified) 과학에 대한 신념을 깨뜨리면서 통일되지 않은(disunified) 과학의 토대를 제공했다”고 한다(홍성욱,2005).

레이믹 이론이란 진리는 프레임웍 안에서의 진리임을 주장하는데, 이는 과학주의 모델이다 (Reisch,1991). 따라서 카르납의 관점에서는 쿤의 패러다임 이론이 논리실증주의와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논리실증주의와 다른 언어로 이루어진, 논리실증주의의 변종으로, 논리실증주의의 다양화로 보았음을 의미한다(홍성욱,2005). 카르납이 쿤의 모델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바는 쿤의 모델이 후술하는 바처럼 인문학주의 배경을 지니고 있어서 과학주의를 극복할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논리실증주의(넓게는 이에 기초한 과학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진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쿤의 이론으로 말미암아 실증주의를 재구축하고자 하는 포퍼나 라카토스(I. Lakatos)의 시도는 물거품이 되었고 그 이후에는 학문의 방향은 아래 <표 4>에서처럼 바뀌었다.

<표 4> 쿤 이전과 쿤 이후의 비교

	쿤 이전	쿤 이후
과학철학의 경향	실재론(realism)	실재론에 의문 이후 구성주의 발달
과학과 사회	과학과 사회 사이에 뚜렷한 구분	사회 속에서의 과학
과학의 발전	누적적이고 연속적인 발전	혁명적이고 불연속적인 발전
관찰과 이론	관찰과 이론의 분명한 구분	관찰과 이론의 연결
과학활동의 본질	자연에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	과학의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
과학의 주체	과학자 개인	과학자 사회
소통	과학자들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패러다임 사이의 공약불가능성
통일성	과학의 통일성을 믿고 이를 강조	통일성이 존재하지 않음
진보와 진화	진보는 있다	진보는 없고 진화가 있을 뿐

출처: 홍성욱(2015)

패러다임 이론은 쿤이 스스로 인정했듯이 비트겐슈타인의 가족유사성이나 워프(B. L. Whorf)의 언어상대성에 영향을 받았다. 즉 쿤 이론의 철학적 바탕은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언어게임이다. 이 두 개념은 명백히 정의하기 어렵지만, ‘진리’라는 개념은 ‘합의(consensus)’라는 개념으로 대치시키고, 언어공동체는 과학자 집단이라는 데 일치한다. 가족유사성이라는 개념은 물리학자가 물리현상을 설명하고, 생물학자는 생물현상을 설명하고, 사회학자는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것을 아우른다. 이는 그들이 과학이라는 큰 언어게임 테두리 속에서 그보다 작은 서로 다른 언어게임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Phillips,1977:78-97; 이정민,1989). ‘진리’라는 개념을 ‘합의’라는 개념으로 대치시킨다거나 언어게임이라거나 가족유사성이라거나 하는 것이 과학주의에서 인문학주의로의 방향으로, 그 행정학적 의미는 두 흐름의 대립을 넘어설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지금 행정학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은 효율성 패러다임일 것이다. 행정학자들은 효율성 패러다임 속에서 문제풀이에 열중하고 있다. 이를 다중패러다임(multi-paradigm)으로 바꾸어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도록 이끌어 낼 때에 행정학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다. 그 가능성은 과감한 가설이 가능한 인문학주의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인문학주의에서 과학주의로의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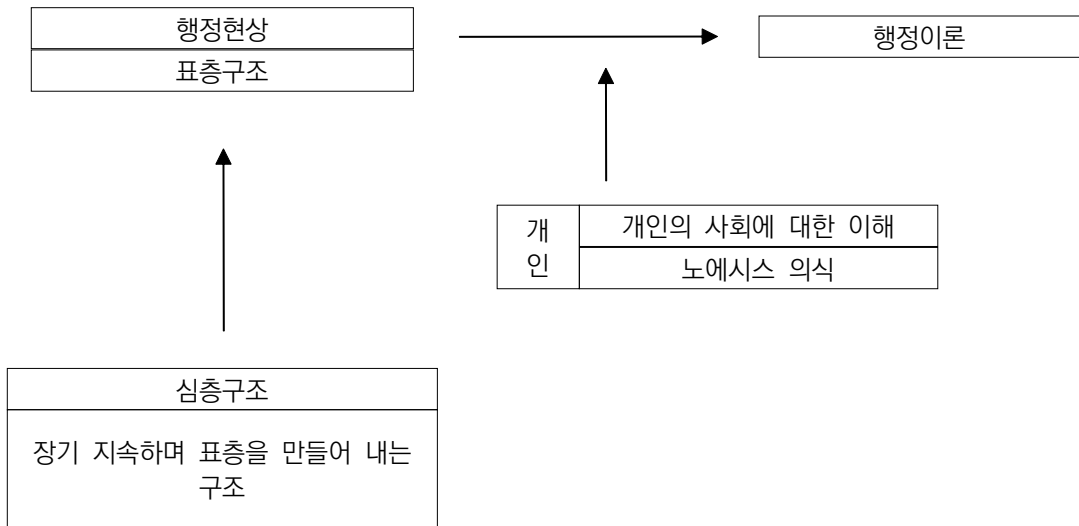
논리실증주의나 그것의 재구축 프로그램이 실패한 것과 과학적 방법에 대한 존중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지난 세기(世紀)에 과학기술의 발전은 과학적 방법과 그에 힘입은 성과를 의심하여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인문학주의자에게서 자리 잡게 되었다(김동식, 1995:51). 이러한 반성 외에, 인문학주의에게 충격을 준 또 다른 흐름은 인지과학의 발달이다(김동식, 1995:51).³⁶⁾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인문학 속에서 과학주의를 추구하는 노력과 그에 따른 성과가 나타났다. 그 성과란 인문학주의와 과학주의가 점점 융합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움직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가시적 모습은 여러 가지이다. 철학에서는 도야(陶冶; Bildung) 개념의 도입을 통해, 즉 타자를 자신 속에 보존하는 것을 통해서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사실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려 한다(박순영, 2012).

보다 가능성이 있는 모델은 언어철학에서 수용하는 촘스키(N. Chomsky)의 모델이다(Magee, 1978). 변형·생성 모델(transformational-generative model: 이하 T-G model)로 부르는 이 모델은 역사학의 브로델(F. Braudel)의 주장과도 합치되며(김응중, 2006; Braudel, 1997; 2008), 경험적인 연구에 기초하고, 개별성과 보편성 모두에 대한 매우 명시적이고 체계적인 이론을 제공하고 있다(강명운, 2007a). 이는 앞서 서술한 과학주의의 대표적인 모델인 D-N 모델과 대조된다(Itokonon, 1975:382-384; 오용득, 2013; 박승배, 2009), 이를 사회 연구에 적용하면 사회구조란 두 개 수준의 구조적 규칙성을 보이는데, 하나는 그 구조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의식되는 표면적 구조인 표층(surface structure)이고, 다른 하나는 일정한 근본적 행동들로 생산되고 그러한 행동들의 성격에 의해서 한정되는 드러나지 않는 심층(deep structure)이다.³⁷⁾ 이를 나타낸 것이 아래 <그림 4>이다.

36) 이 속에는 정보처리모델 이론, 컴퓨터 과학과 인공지능, 촘스키 언어학의 발달 등을 총칭한다(김동식, 1995:52).

37) 한국정치에서 자유주의라는 보수의 기본적 가치조차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구조'의 문제라고 한다. 정두언 의원에 따르면 "국회의원들 왜 저러나 하고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이 구조 속에 들어오면 똑같이 하게 된다. 지금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는 게 아니다. 권력이 뽑는 것이다. 지역감정에 기반을 둔 양당 체제에 있다 보니, 영·호남에서 각각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공천만 받으면 국회의원이 된다. 선거 때 어디서 놀다가 와도 당선된다. 그러니 국회의원이 누구 눈치를 보겠나. 권력 눈치를 본다. 그러니 의원들에게 자율성이 없다."라고 한다(프레시안, 2015.11.19.;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1256>).

〈그림 4〉 T-G 모델



출처: Chomsky(1957;1966) 수정

이 모델에 의하면 기저에 심층구조(deep structure)가 있는데, 심층구조란 ‘시간이 지나도 변함 없이 오래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것’이며(김응중,2006:38), 의미를 창출하는 층위이다. 그 위에 표층(surface structure)이 있다.³⁸⁾ 이 두 구조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변형(transformation)이라는 장치를 마련한다.³⁹⁾ 이 방법론에 따르면 표층에 나타난 행위는 그 의미의 연원이 심층에 있고 변형과정을 통해 표층으로 옮겨왔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T-G 모델의 기제는 인간의 경험을 초월한다는 관점에서 칸트(I, Kant)의 견해와도 맞물리며, 노에시스 의식(noetic consciousness)이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관한 이론이므로 의식(마음 또는 정신, mind)의 일부로 이해할 수 있게 하여 현상학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다(강명윤,2007a).⁴⁰⁾ 이 지점에서 구조주의와 현상학이나 해석학이 만날 수 있고 또 이러한 이해의 바탕

38) 역사학에서 브로델의 모델은 그 사이에 ‘콩중튀르’가 있다. 이것은 상승이나 하강과 같은 국면을 지칭한다(김응중,2006). 여기서는 심층-표층만 언급하므로 본문에서는 생략하였다. 그는 “인간은 구조와 국면이 만들어낸 감옥에 갇힌 수인에 불과하다. 사건은 덧없고 개인은 무력하다. 사건과 개인은 존재했지만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역사의 방향에는 변함이 없었을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역사 흐름을 설명한다. 즉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사건은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본다(김응중,2006:113).

39) 변형은 윈치(P. Winch)의 규칙 따르기(Winch,1958; Song,1984; Kim,2008), 설의 지향성이론(Searle,1983), 콰인의 총체성 이론(Quine,1961; 이정민 외, 1977; 강명윤,2007a; 강명윤,2007b) 등과 잘 어울린다. 그런데 이를 넓게 잡아 해석적 방법으로 이해한다면 칼-오토 아펠의 철학(Reese-Schäfer,1990; Kelly,1994; 김진,1998),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이론(Habermas,1987; 한상진,1996; 정호근,1996), 푸코의 담론이론(Foucault,1971; 1977; 한상진,1981) 등도 참조할 이론으로 보인다.

40) 언어를 현상학적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촘스키(N. Chomsky)나 윈치(P. Winch)에서 보는 바처럼 언어를 규칙 따르기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하이데거의 관점에서 세계를 둘러보기(circumspection: Umsicht)로 본다고 한다(강명윤,2007a; Heidegger,1979; 이기상,2011).

에는 심리철학이 자리 잡고 있다(강명윤, 2007a; 2007b; 박순영, 2012). 이런 방법론은 T-G 모델을 은유(metaphor)로 삼고 사회체계의 구조적 유형을 서술하고 설명하려는 것이다(김경동, 1981). 그러나 T-G 모델은 인간의 내재적인 측면으로 더 깊이 심층을 설정하므로 사회과학에 응용하려면 보완이 필요하다. 그 보완이 비트겐슈타인의 언어철학으로, 다양한 세계관으로서의 표현이 언어 게임이며 언어공동체라는 문화적 문법에 더 잡고 있다는 점이다(polkinghorne, 1983:149; 박순영, 2012).⁴¹⁾ 이는 고유한 속성을 가지면서 공동의 인간 행동방식이 있고, 그것을 통해 낯설음을 해석할 수 있는 관련체계이다(비트겐슈타인, 1953, No.123, S.49; 이규호, 2005b:147-148). 이는 앞서 ‘진리’를 ‘합의’로, 또 언어게임 및 가족유사성이 과학주의와 인문학주의의 대립을 넘어설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서술한 것의 되풀이이다.

행정학과 관련해서는 표층과 심층이 다르다는 것을 1970년대부터 인식하고(Wittgenstein, 1953; 이훈, 1984:270; Chomsky, 1957; Chomsky, 2006), 인문학주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이른바 신 행정학이 가치로의 접근법으로 그 시기에 나타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또 이어서 파머(D. Farmer, 1995)의 행정언어이론이 나타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주체는 일정한 개념구조[렌즈로서의 언어]로서만 세상을 볼 수 있으며 사고(思考)의 형식들이 시각을 결정한다. 일상적인 언어현상을 삶의 현상의 핵심으로 해석하고(이규호, 2005a; 2005b), 행정의 고유한 제도, 규범, 문화를 행정언어로 규정한다. 이는 행정이론가들의 부분문화를 구성하며, 언어로서의 행정이론은 행정에 관한 이해를 돕고 행정실무를 인도하는 수많은 가정, 관념, 접근방법, 두려움, 그리고 소망을 반영한다(강신택, 2010). 파머(D. Farmer, 1995)는 공공관료제의 성격, 규모, 범위 및 기능에 관하여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행정이론은 위와 같은 절박한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강신택, 2010).

VI. 결론

이 글은 행정학에서 암묵적으로 진행되어 온 두 흐름인 과학주의와 인문학주의를 논의의 장(場)으로 끌어내어 그 개념을 정립하고 그 둘 사이의 관련성을 살펴보려 하였다. 여기서 과학주의란 연구주제를 대상화·객관화하는 맥락에서 사회과학의 자연과학화를 주장하는 흐름으로, 행정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논리실증주의, 후기실증주의, 행태주의를 포괄한다. 인문학주의는 과학으로 환원할 수 없는 영역이 있음을 주장하는 흐름으로 현상학, 해석학, 비판이론, 포스트모더니즘을 아우른다. 먼저 두 흐름의 현재 상태를 행정학의 대표 저널에 실린 논문들의 주제어 검색을 통해 살펴보았는데, 현 상황은 익히 알다시피 인문학주의가 상당히 부족하다. 이는 응용과학의 속성인 대응성에 치중하다 보니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제는 사회과학의 선두에 선 학문으로, 다른 학문에 연구의 성과를 수출하여야 할 입장에 있는 행정학은 대응성과 아울러 정합성을 요구

41) 문화적 문법이란 어떤 집단이 공유하는 의식과 행위의 규칙들로 구성원들이 내면화하여 장기적으로 지속하며, 잘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정수복, 2007:74-75).

함을 지적하였다.

논리실증주의에서 기원하는 흐름은 실제에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친화력이 있고, 학문상으로는 집합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따라서 그 상위수준에서는 논리적이거나 체계적이지만 최일선에서는 경험적으로 세계와 관련을 맺는다. 이에 비해 인문학주의는 가치나 이해 및 의미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이 흐름을 행정학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는 위기관리체제로 정의되고 행정은 규제와 복지 서비스를 그 본질로 한다.

그렇지만 과학주의는 인문학적 요소를 받아들여 왔고, 인문학주의는 과학의 발달과 그 영향을 수용해 왔다. 그 대표적인 모델이 T-G 모델로 이를 은유(metaphor)로 삼고 사회체계의 구조적 유형을 서술하고 설명할 수 있다. 여기에 언어게임과 언어공동체라는 문화적 문법을 가미한다면 보다 더 적실성 있게 행정학에 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노력들을 통해 공공관료제의 성격, 규모, 범위 및 기능에 관하여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답할 수 있는 행정이론을 구성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강명윤 (2007a) 촛스키 언어학의 현상학적 해석, 「생성문법연구」(제17권 제1호), pp.47-68.
- _____ (2007b) 촛스키의 언어관을 다시 생각하며: 그 철학적 비판, 「인문언어」(제19집), pp.213-231.
- 강신택 (2010) 행정학의 언어, 행정언어연구회 발표자료.
- _____ (1981) 「사회과학 연구의 논리:정치학·행정학을 중심으로」, 서울: 박영사.
- 강신택 외 (1982) 「정책학: 과정과 분석」, 서울: 법문사.
- 고미영 (2009) 「구성주의사회복지 실천기술론」, 서울: 집문당.
- 김경동 (1981) 오늘날 사회학이론을 둘러싼 쟁점들(I), 「현상과 인식」(5권 2호) pp.84-128.
- 김광웅 (1983) 「행정과학 서설」, 서울: 박영사.
- _____ (1975) 후기행태주의론: 실증주의, 역사주의 및 현상학적 방법론, 「행정논총」(vol.13, no.2), pp.110-127.
- 김덕영 (2003) 「논쟁의 역사를 통해 본 사회학: 자연과학·정신과학 논쟁에서 하버마스·루만 논쟁까지」, 서울: 한울아카데미.
- 김동식 (1995) 자연주의 인식론의 철학적 의의, 「철학적 자연주의」, 서울: 철학과현실사.
- 김상환 (2011) 데리다의 글쓰기와 들뢰즈의 사건: 구조주의 수용의 두 양상, 「기호학연구」(제29집), pp.10-44.
- 김여수 (1984) 비트센슈타인과 본질철학의 종언, 「비트센슈타인의 이해」, 서울: 서광사.
- _____ (1997) 「언어와 문화」, 서울: 철학과 현실사.
- 김영래 (1983) 후기행태주의에 관한 고찰과 평가, 「현상과 인식」(vol.7, no.2), pp.117-134.
- 김영정 (1997) 「언어·논리·존재: 언어철학·논리철학 입문」, 서울: 철학과현실사.

- 김응중 (2006) 「페르낭 브로델: 지중해·물질문명과 자본주의」, 서울: 살림.
- 김지홍 (2002) 내재주의 언어철학에 대하여, 「시학과 언어학」(vol.3), pp.150-198.
- 김진 (1998) 「아펠과 철학의 변형」, 서울: 철학과 현실사.
- 김진영 (1986) 반실증주의 사회학방법론에 대한 일고찰, 「제주대논문집」(제23집), pp.385-401.
- 김창래 (2001) 언어철학적으로 살펴본 정신과학의 의미, 「해석학연구」(vol.8), pp.67-116.
- _____ (2008) 유일하게 옳은 해석은 있는가? 해석의 기준에 관하여, 「해석학연구」(vol.22), pp. 99-136.
- 김태성·성경룡 (1999) 「복지국가론」, 서울: 나남.
- 김형효 (2008) 「구조주의: 사유체계와 사상」, 서울: 인간사랑.
- 박만엽 (2008) 포퍼의 사회과학 논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 「철학탐구」(제24집), pp.65-89.
- 박병철 (2006) 「버트런드 러셀의 삶과 철학」, 서울: 서광사.
- 박순영 (2012) 사회과학방법론의 철학적 근거: 사회과학적 연구대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 「행정언어와 질적 연구」(제3권 제1호), pp.1-20.
- 박승배 (2009) 과학에서의 법칙과 이론에 대한 고찰, 「범한철학」(제52집), pp.257-279.
- _____ (2005) 수학적 도구론, 「범한철학」(제37집), pp.237-255.
- 박은진 (2001) 「칼 포퍼 과학철학의 이해」, 서울: 철학과현실사.
- _____ (1999) 반증과 반증주의, 조인래 외, 「현대과학철학의 문제들」, 서울: 아르케.
- 소두영 (1988) 「구조주의」, 서울: 민음사.
- 소흥렬 (2013) 「논리와 사고」, 서울: 이화여대 출판부.
- _____ (2000) 과학과 철학의 관계: 그 두 번째 만남, 「21세기와 분석철학」, 서울: 철학과 현실사.
- 신중섭 (1992) 「포퍼와 현대의 과학철학」, 서울: 서광사.
- 연효숙 (1998) 가장 비트겐슈타인적인 철학으로의 귀환과 철학의 정체성: '과학적 철학의 꿈: Wittgenstein 오독의 유산'을 읽고서, 「大同哲學」(제47집).
- 오용득 (2013) 과학주의자와 인문학주의자의 통약 불가능한 대화의 실질적 의미, 「서강인문논총」(제36집), pp.31-63.
- 우실하 (1990) 칼 포퍼 과학방법론의 논리적 배경과 그 전개, 「연세사회학」(10/11 합본호), pp. 107-138.
- 우치다 다츠루(内田 樹) (2002) 「寝ながら學べる構造主義」, 이경덕 (옮김)(2011) 「푸코, 바르트, 레비스트로스, 라캉 쉽게 읽기: 교양인을 위한 구조주의 강의」, 서울: 갈라파고스.
- 유민봉 (2012) 「한국행정학」(제4판), 서울: 박영사.
- 윤광호 (2002) 포퍼의 비판적 합리주의에서 인과성이 가지는 의미, 「철학논총」(제27집), pp.173-190.
- 윤민재 (2010) 포퍼의 과학철학 방법론과 부정성, 「기독교철학」(10호), pp.127-146.
- 이광석 (2014) 행정과 생활세계의 충돌과 조화에 관한 연구: 의식의 흐름 방법을 적용한 밀양 송전탑 사태의 분석, 「한국행정학보」(제48권 제3호), pp. 147~174.
- 이구슬 (1996) 「해석학과 비판적 사회과학」, 서울: 서광사.
- 이규호 (2005a) 「해석학」, 서울: 연세대 출판부.

- _____ (2005b) 「언어철학」, 서울: 연세대 출판부.
- 이기상 (2011) 「하이데거의 생애와 사상 그리고 그 영향」, 서울: 누멘.
- 이덕복 (1993) 「공공정책의 정당화 논리에 관한 연구: 논리실증주의적 정당화 논리의 한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명현 (1984) 삶의 형식의 두 가지 국면, 분석철학연구회(편) 「비트겐슈타인의 이해」, 서울: 서광사.
- _____ (1995) 언어와 사고 그리고 존재 세계, 박영식(편저) 「언어철학연구(I): 비트겐슈타인과 언어」, 서울: 현암사.
- 이상원 (2005) 인식적 확실성, 원초 문장, 실험의 비단일성, 「철학연구」(제23집), pp.199-226.
- 이승권. (2000). 언어에 관한 언어철학의 한 시각, 「불어불문학연구」(제43집), 서울: 한국불어불문학회, pp.393-415.
- 이정민 (1989) 「언어이론과 현대과학사상」, 서울: 서울대출판부.
- 이정민·이병근·이명현 (1977) 「언어과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문학과지성사.
- 이정복 (1980) Gadamer에 있어서 해석학적 방법과 이해의 문제, 「철학연구」(제15집), pp.3-14.
- 이종수 (2015) 「공동체: 유토피아에서 마을만들기까지」, 서울: 박영사.
- 이한구 (2011) 「역사학의 철학」, 서울: 민음사.
- 이훈 (1984) 비트겐슈타인, 언어, 철학, 「비트겐슈타인의 이해」, 서울: 서광사.
- 임규정 (2004) 포퍼와 쿤의 과학관을 통해 본 진리, 「大同哲學」(제25집), 대동철학회. pp.1-19.
- 전영삼 (2005) 논리주의의 세계구성: 카르납의 경우를 중심으로, 「과학철학」 (제8권 제2호), pp.1-30.
- 정대연 (1997) 「사회과학방법론사전」, 서울: 백의출판사.
- 정수복 (2007)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 서울: 생각의 나무.
- 정호근 (1996) 의사소통적 규범정초 기획의 한계, 「사회비평」(제15호), 나남출판. pp.46-93.
- 조용현 (1992) 「칼 포퍼의 과학철학」, 서울: 서광사.
- 조주환 (2001) 현상학적 의미와 진리 문제, 「철학논총」(제26집 제4권), 새한철학회. pp.179-200.
- 중원문화 (2009) 「철학사전」, 서울: 중원문화사.
- 한상진 (1996) 언술검증과 비판이론, 「사회비평」(제15호), 나남출판. pp.16-45.
- _____ (1981) 미셸 후코의 정치철학과 사회이론: 후기 구조주의의 한 흐름, 「현상과 인식」(5권 2호), pp.178-204.
- 한상진 (편)(1988) 「국가이론과 위기분석」, 서울: 전예원.
- 황의숙 (1998) 과학적 철학의 꿈: Wittgenstein 오독의 유산, 「大同哲學」(제47집).
- 홍성욱 (2005) 토마스 쿤의 역사학, 철학, 그리고 과학, 「서양사연구」(제33집), pp.139-175.
- _____ (2015) <http://openlectures.naver.com/contents?contentsId=classic>.

Adorno, Theodor (et al.) (1976) *The Positivist Dispute in German Sociology*, London: Harper Touchbooks.

Agassi, Joseph (2014) *Popper and his Popular Critics: Thomas Kuhn, Paul Feyerabend and Imre*

- Lakatos, London: Springer.
- Ayer, A. J. (ed.)(1959) *Logical Positivism*, New York: The Free Press.
- Baum, William M. (2005) *Understanding Behaviorism: Behavior, Culture, and Evolution*, Oxford: Blackwell.
- Benton, Ted (1977)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the Three Sociologies*,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Bergmann, Gustav (1967) *The Metaphysics of Logical Positivism*, Milwaukee: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Bird, Graham (1986) *William James: The Arguments of the Philosophers*, London: Routledge.
- Braudel, Fernand (1986) *Civilisation materielle, economie et capitalisme: XVe-XVIIIe siecle*, Paris: Armand Colin Editeur, 주경철 (옮김) (1997)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서울: 까치.
- _____ (2008) *La dynamique du capitalisme*, Flammarion, 김홍식 (옮김) (2012)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읽기」, 서울: 갈라파고스.
- Brown, Harold I. (1977) *Perception, Theory and Commitment: The New Philosophy of Scienc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신중섭 (옮김) (1987) 「논리실증주의의 과학철학과 새로운 과학철학」, 서울: 서광사.
- Burrell, Gibson and Gareth Morgan (2006) *Sociological Paradigms and Organisational Analysis*, Aldershot: Ashgate.
- Carnap, Rudolf (1967) *The Logical Structure of the World*,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 Chalmers, Alan Francis (1982) *What is the thing called Science?: An assessment of the Nature and Status of Science and its Method*, St. Lucia: University of Queensland Press, 신일철·신중섭 (옮김), (1985) 「현대의 과학철학」, 서울: 서광사.
- Chomsky, Noam (1957) *Syntactic Structure*, Hague: Mouton.
- _____ (1966) *Cartesian Linguistics: A Chapter in the History of Rationalist Thought*, London: Harper and Row.
- _____ (2006) *Language and Min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larke, John and Janet Newman (1997) *The Managerial State: Power, Politics and Ideology in the Remaking of Social Welfare*, London: Sage Publications.
- Connolly, John M. & Thomas Keutner (eds.)(1988) *Hermeneutics versus Science? Three German Views: Essays by H. G. Gadamer, E. K. Specht, W. Stegmüller*, Notre Dame: Notre Dame University Press.
- Coser, Lewis A. (1977) *Masters of Sociological Thought: Ideas in Historical and Social Context*, New York: Harcourt Brace Javanovich, Inc.
- Dallmayr, Fred R. (1984) *Language and Politics: Why does Language matter to Political Philosophy?*, London: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 Dummett, Michael (1993) *Origins of Analytical Philosophy*, London: Duckworth.
- Fann, K. T. (1969) *Wittgenstein's Conception of Philosoph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 Press.
- Farmer, David (1995) *The Language of Public Administration: Bureaucracy, Modernity, and Postmodernity*, Tuscaloosa: University of Alabama Press, 강신택 (옮김)(1999), 「행정학의 언어」, 서울: 박영사.
- Faucault, Michel (1977) *Language, Counter-memory, Practic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_____ (1971) *L' Ordre du discours*, Gallimard, 이정우 (옮김)(1997), 「담론의 질서」, 서울: 새길.
- Feigl, Herbert (1969) The Origin and Spirit of Logical Positivism, in Peter Achinstein & Stephen F. Barker (eds.) *The Legacy of Logical Positivism*, Baltimore: The Johns Hopkins Press.
- Fodor, Jerry A. (1981) *Representations: philosophical essays on the foundations of cognitive science*, Cambridge, Mass.: MIT Press, 이영옥·정성호 (옮김)(1991), 「표상: 인지과학의 기초에 관한 연구」, 서울: 민음사.
- Frederickson, George (1980) *New Public Administration*, The University of Alabama Press.
- Gadamer, Hans-Gerg (1982) *Truth and Method*, New York: Crossroad, 이길우 외 (옮김)(2012), 「진리와 방법」, 서울: 문학동네.
- Giere, Ronald N. & Alan W. Richardson (1996) *Origins of Logical Empiricism*,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Glock, Hans-Johann (2008) *What is Analytical Philosoph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한상기(옮김)(2009), 「분석철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서광사.
- Glucksman, Mariam (1974) *Structuralist Analysis in Contemporary Social Thought: A comparison of the Theories of Claude Levi-Strauss and Louis Althusser*, London: RKP, 정수복 (옮김)(1983), 「구조주의와 현대마르크시즘」, 서울: 한울.
- Gross, Barry R. (1970) *Analytic Philosophy: An Historical Introduction*, New York: Pegasus.
- Habermas, Jürgen (1987) *Theories des kommunikativen Handelns: Handlungsrationalität und gesellschaftliche Rationalisierung*, Frankfurt: Suhrkamp Verlag, 장춘익 (옮김)(2011), 「의사소통행위이론」, 서울: 나남.
- _____ (1972) *Toward a rational Society: Student Protest, Science, and Politics* (tr. by Jeremy J. Shapiro), London: Heinemann, 장일조 (옮김)(1982), 「이성적인 사회를 향하여」, 서울: 종로서적.
- Halfpenny, Peter (1982) *Positivism and Sociology: Explaining Social Life*, London: George Allen & Unwin.
- Harmon, Michael M. and Richard T. Mayer (1986) *Organization Theory for Public Administration*,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 Heidegger, Martin (1979) *Sein und Zeit*, Tübingen: Max Niemeyer Verlag, 이기상 (옮김)(2003), 「존재와 시간」, 서울: 까치.
- Hempel, Carl G. (1965) *Aspect of Scientific Explanation and other essays in the philosophy of science*, New York: The Free press.

- _____ (1966) *Philosophy of Natural Science*,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Inc., 광강제 (윝김)(1981), 「자연과학의 철학」, 서울: 양영각.
- Hesse, Mary B. (1969) *Positivism and the Logic of Scientific Theories*, in Peter Achinstein & Stephen F. Barker (eds.) *The Legacy of Logical Positivism*, Baltimore: The Johns Hopkins Press.
- Husserl, Edmund (1970) *The Crisis of European Sciences and Transcendental Phenomenology* (tr. by David Carr), Evanston: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 Iggers, Georg G. (trans.)(1958) *The Doctrine of Saint-Simon*, New York: Schocken Books.
- Itokonen, Esa (1975) *Transformational Grammar and the Philosophy of Science*, in E. F. K. Koerner (ed.) *The Transformational-Generative Paradigm and Modern Linguistic Theory*, Amsterdam: John Benjamins B. V.
- James, William (1990) *The Principles of Psychology*, The University of Chicago.
- Jänicke, Martin (1973) *Krisen des Kreisenmanagement: Elementeeiner Politischen Kreistheorie*, in Martin Janicke (ed.) *Herrschaft und Kreise*, Westdeutscher Verlag, 한상진 (윝김)(1988), 「국가이론과 위기분석」, 서울: 전예원.
- Jennings, I. (1961) *Cabinet Govern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oergensen, Joergen (1970) *The Development of Logical Empiricism*,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ann, Mark M. (1980) *Thinking about Politics: Two Political Sciences*, St. Paul, Minnesota: West Publishing.
- Kelly, Thomas A. F. (1994) *Language and Transcendence: A Study in the Philosophy of Martin Heidegger and Karl-Otto Apel*, Berne: Peter Lang.
- Kim, Hiheon (2008) *Peter Winch's Idea on the Nature of Human Understanding*, 「철학탐구」(제 24집).
- Kolakowski, Leszek (1972) *Positivist Philosophy: from Hume to the Vienna Circle*, Harmondsworth: Penguin Books.
- Kraft, Victor (1953) *The Vienna Circle: The Origin of Neo-Positivism*, New York: Greenwood Press.
- Kuhn, Thomas (1970)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조형 (윝김)(1981), 「과학혁명의 구조」, 서울: 이화여대 출판부.
- Lynch, Thomas D. & Peter L. Cruise (2006) *Handbook of Organization Theory: The Philosophical Approach*(2nd ed.), London: Taylor and Francis Group.
- MacLennan, Bruce (2006) *From Pythagoras to the Digital Computer: The Intellectual Roots of Symbolic Artificial Intelligence*,
<http://web.eecs.utk.edu/~mclennan/Classes/UH267/handouts/WFI/c8.pdf>
- Magee, Bryan (1978) *Some Creators of Contemporary of Philosophy: Men of Ideas*, London: BBC, 이명현 (외) (윝김)(1985), 「현대철학의 쟁점들은 무엇인가」, 서울: 심설당.

- Marini, Frank (1971) *Toward a New Public Administration: The Minnowbrook Perspective*, New York: Chandler Publishing Company.
- Milkov, Nikolay and Volker Peckhaus (eds.)(2013) *The Berlin Group and the Philosophy of Logical Empiricism*, Dordrecht: Springer.
- Miller, Eugene F. (1972) Positivism, Historicism and Political Inquir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vol.66, no.3), pp.796-817.
- Myers, Gerald E. (1986) *William James: his Life and Thought*,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O'Connor, James (1987) *The Meaning of Crisis*, New York: Basil Blackwell.
- O'Connor, Daniel J. (1975) *The Correspondence Theory of Truth*, London: Hutchinson & Co.
- Offe, Claus (1984) *Contractions of the Welfare State*, J. Keane (ed.), London: Hutchinson Co. Ltd.
- Pawar, Badrinarayan Shankar (2009) *Theory Building for Hypothesis Specification in Organizational Studies*, London: Response.
- Phillips, Derek L. (1977) *Wittgenstein and Scientific Knowledge: A Sociological Perspective*, London: Macmillan.
- Polkinghorne, Donald (1983) *Methodology for the Human Sciences: Systems of Inquiry*,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Putnam, Ruth Anna (ed.)(1997) *The Cambridge Companion to William Jam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Quine, W. V. (1961) *From a Logical Point of View*,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허라금 (옮김)(1993) 「논리적 관점에서」, 서울: 서광사.
- Reese-Schäfer, Walter (1990) Karl-Otto Apel: Zur Einfuhrung, Hamberg, 권용혁 (옮김)(1992) 「칼-오토 아펠과 현대철학」, 울산: 울산대학교 출판부.
- Reisch, George A. (1991) Did Kuhn Kill Logical Empiricism?, *Philosophy of Science*(vol.58), pp.264-277.
- Rorty, Richard (1998) Against Unity, *The Wilson Quarterly*(vol.22, no.1), pp.28-38.
- Russell, Bertrand (1914) *Our Knowledge of the External World as a Field for Scientific method in Philosophy*, Chicago: Open Court.
- _____ (1947) *Philosophy and Politics*,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94) *The Philosophy of Logical Atomism*, La Salle, Illinois: Open Court.
- _____ (1969) *My Philosophical Development*,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곽강제(옮김)(2008) 「나는 이렇게 철학을 하였다」, 서울: 서광사. .
- Salmon, Wesley C. (1990) *Four Decades of Scientific Explanatio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Schilpp, Paul Arther (1991) *The Philosophy of Rudolf Carnap*, La Salle, Illinois: Open Court.
- Searle, John R. (1983) *Intentionality: An essay in the Philosophy of Mi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심철호 (옮김) (2009) 「지향성」, 서울: 나남.
- Sen, Biswarup (1990) *The Question of Method in Social Science*, Ann Arbor: U·M·I.

- Simon, Herbert A. (1957) *Administrative Behavior: a study of decision-making processes in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New York: Free Press.
- Smith, Jonathan A., Paul Flowers, Miochael Larkin (2009) *Interpretative Phenomological Analysis*, London: Sage.
- Song, Tong Kun (1984) A Study of Peter Winch, 「사회과학논집」(제4집), 이화여자대학교, pp.47-61.
- Stegmüller, Wolfgang (1969) *Main Currents in Comtemporary German, British and American Philosophy*, Dordrecht: Reidel Publishing Company, 이초식·김영남·정영기(옮김)(1995) 「현대 경험주의와 분석철학」, 서울: 고려대출판부.
- Stockman, Norman (1983) *Antipositivist Theories of Sciences: Critical Rationalism, Critical Theory and Scientific Realism*, Dordricht, Reidel Publishing Company.
- Stout, Rowland (2006) *The Inner Life of a Rational Agent: in Defence of Philosophical Behaviourism*,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 Suppe, Frederick (1974) *The Structure of Scientific Theories*, London: University of Illinois.
- Uttal, William R. (2000) *The War between Mentalism and Behaviorism: On the Accebility of Mental Processes*, London: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Weinsheimer, Joel C. (1985) *Gadamer's Hermeneutics: A Reading of Truth and Method*,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Winch, Peter (1958) *The Idea of a Social Science and its Relation to Philosoph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Wittgenstein, Ludwig (1953) *Philosophical Investigation*, London: Blackwell Publishing Co. 이영철(옮김)(2006), 「철학적 탐구」, 서울: 책세상.
- _____ (1921) *Tractatus logico-Philosophicus*,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이영철(옮김)(2006), 「논리철학논고」, 서울: 책세상.

이광석(李光錫): 영국 University of Newcastle upon Tyne에서 사회정책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복지정책, 행정언어, 다문화행정, 국제행정 등이며, 최근 논문으로는 “프레임의 명명과 전환 및 검증에 관한 연구: 영국 스코틀랜드의 지방자치와 독립논의를 중심으로”(2016), “치매특별등급 제도운영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2016) 등이 있고, 최근 저서로는 “복지언어론: 복지정책학의 과학철학과 인문학주의의 융합”(2016), “정책으로서의 행정언어: 국어정책론”(2016), “소통학: 학문, 문화, 응용”(공저: 2016), “발전행정시대의 정부와 사회: 새마을 운동을 중심으로”(공저: 2016) 등이 있다(lightstone@knu.ac.kr).

문유석(文維錫): 인디애나대학교 공공 및 환경행정대학원(SPEA)에서 2004년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경성대학교 법정대학 법행정정치학부에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학문적 주요 관심분야로는 조직관리, 갈등관리, 성과평가, 경찰행정 등이다(yumoon@ks.ac.kr).

Abstract

A Study on the Antagonism between Human Studies and Scientism in Public Administration and on the Harmony between the two

Lee, Kwang-seok

Moon, Yuseok

This paper probes a way of harmony between Human Studies and Scientism, which have shown the antagonistic attitude to each other in Public Administration. Here scientism insists that social sciences should follow the methodology of natural science in the context that the subjects to be discussed are objective. Scientism in Public Administration covers Logical Positivism, Post-positivism and Behaviorism, which have influenced Public Administration. Human studies in Public Administration insist that social sciences have some aspects which can never be reduced to natural sciences, which means that social sciences have inherent elements distinguishable from natural sciences. They covers Phenomenology, Hermeneutics, Critical Theory. This paper analyzes the two above-mentioned streams through keyword review in the representative journals on Public Administration. The result shows us that human studies' voices in Public Administration have been weak in comparison with the scientism.

But nowadays scientism needs human studies and the latter needs the former as well. This paper accepts this trend and makes an effort for the harmony the two camps that have shown the antagonistic attitudes in Public Administration. For example, Thomas Kuhn's paradigm theory has been identified as the effort to human studies from scientism, while T-G Model is recognizable to scientism from human studies. This is the best way to theory-building in Public Administration.

Key Words: Scientism, Human Studies, Logical Positivism, Phenomenology, T-G Model